

Contents

권두언	1
러시아학 독회지원사업	3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5
학회지 발간	6
회원동정	6
신간 소개	7
공지사항	10
회비납부	10

발행일 2022. 6.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심성보

권두언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원님들께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의 반을 강의와 연구로, 그리고 분주한 개인의 삶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노라 토닥여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했는데, 올해 2월 24일 이후 저를 포함해 (아마도) 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수경 회원(부산대)

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금융 제재,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확정, 러시아의 "루한스크주 사실상 점령" 등 연일 보도되는 뉴스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학계에서는 사회과학 분야 러시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대담회 등을 발 빠르게 조직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대유라시아 전략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협정의 성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구 담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한국의 언론인과 지식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국민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러시아인들 전체에 대한 집단적 혐오의 정서를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인 서구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질서를 바라보는데 익숙했던 한국이 이제 세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된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러시아 문화와 종교, 역사, 정치, 사회 등에 두루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온 필자는 2월 24일 이후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많은 작가들, 배우와 감독들, 비평가, 학자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일부는 러시아 정부의 수색 대상이 되고 체포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연구들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과 난무하는 거짓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화두로 소식지의 첫 장을 열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다른 것을 논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제가 했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힘을 모으고 뭐라도 하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일은 러시아의 문화와 인문학적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연구하고 대중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구상하고 동북아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재고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회 선생님들의 매일의 강의와 연구는 한국이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노력이 될 수 있고, “부드러운 힘(мягкая сила)”으로서 러시아를 국제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토양이 될 것이며,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문화적 교류의 끊김 없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의 두 번째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을까”, “문학은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영향을 끼친다면 어느 정도까지일까” 여기서 그들은 “러시아의 봄(Русская весн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우크라이(украї)”라는 말로 회화해 부르며, 핵무기사용을 찬성하고,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소탕을 러시아의 전체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희생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러시아의 Z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자하르 프릴레핀(Захар Прилепин)과 같은 영향력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포함됩니다.

“문학이 그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안에 담긴 주제와 사상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는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문학에는 객관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가”,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찌면 해묵은 논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없던 폭력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책에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상이란 없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듭니다. 즉, 독자가 백 명이라면, 소설 『죄와 벌』도 백 권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인지, 이 작품을 세계적인 문학으로 만든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매우 학술적인 논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안팎에서 “찬성(За)”과 “반대(Против)”를 외치는 많은 이들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홉은 말할 것도 없고 아흐마토프와 브로드스키를 포함해 디킨스, 스탕달, 토마스 만, 보르헤스를 읽었을 것입니다.

다시 러시아 문학 전공자인 저로 돌아와 생각해봅니다. 내가 그동안 강의하고 연구해왔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만, ‘아카데미한 관점에서만’ 러시아 문학을 읽고 해석해 온 것은 아닌지. 위에 열거한 작가들을 포함해 수많은 문학의 거장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류의 문화와 인문학적 가치를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독자가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읽고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 ‘러시아’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이고,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문학이, 문화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저의 이 희망을 한국러시아문학회 선생님들께 전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러시아학 독회지원사업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학회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는 올해부터 학회원들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러시아학 독회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학회원들이 모여서 러시아학 고전이나 러시아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읽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과 및 식사 경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5개 독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독회의 결과물은 학회지 논문 투고, 학술대회 발표, 소식지 서평 투고 등의 방식으로 학회원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각 독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학회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 ▶ 러시아 상징주의 연구 (책임자 김무겸 외 4인)

저희 독회에서는 러시아 상징주의 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물음에 나름대로 답을 얻는 것이 이 독회의 목적입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포스트상징주의’라고도 말해지는, 상징주의 이후의 문예학적 현상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독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는 상징주의자의 입론들과 현대 연구자들의 상징주의 연구물들을 독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안드레이 벨르이의 ‘Символизм как миропонимание’입니다. 이 책을 독회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 한 이유는 한글 번역본(세계관으로서의 상징주의, 2019)과의 비교 독해를 통해 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주의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한 이후에는, 상징주의 연구자 지나이다 민츠의 저서 ‘Поэтика русского символизма’와 함께 상징주의자 니콜라이 민스키의 선언문 ‘При свете совести’와 알렉산드르 블록의 논설문 ‘О соврем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русского символизма’ 등을 읽어나갈 계획입니다. 상징주의자의 논의와 오늘날 상징주의 연구자의 논의를 번갈아 읽음으로서 상징주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고리 스미르노프의 저서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смысл и

эволюция поэтических систем’을 읽으며 ‘포스트상징주의’ 이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독서를 통해 상징주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날 상징주의 연구의 의의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희 독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면으로 만나 2시간 정도 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독회 전에 정해진 독서량을 각자 읽어오고, 독회 당일에는 정리한 생각이나 물음들을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 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회를 지원해주신 한국러시아문학회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저희가 목표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러시아학 소양 쌓기 (책임자 정영주 외 4인)

<러시아학 소양 쌓기> 독회는 문학, 어학, 통번역학, 문화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러시아에 관한 다양한 책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을 추구합니다. 현재 정영주(경상국립대), 김주연(고려대), 김인경(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혜린(한국외국어대), 손재은(고려대) 5명의 회원으로 모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문학, 어학, 통번역학, 문화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나 길잡이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각자 자유롭게 제안해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가급적 많이 읽으며 전공 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폭넓게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 독서를 지양하고, 번역서와 국내 저자의 저서 중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읽습니다.

국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독회는 온라인으로 1-2시간에 걸쳐 진행하며, 학기 중에는 월 1-2회, 방학 중에는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의 독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제니퍼 호먼스의 『아폴로의 천사들(발레의 역사)』 (정은지 옮

김, 까치, 2014)를 4월 23일과 5월 21일에 읽었고, 다음으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세기말의 러시아 문제: 솔제니친 평론집』(유정화 옮김, 걷는사람, 2020)을 6월 11일과 25일에 읽었습니다. 7월 9일로 예정된 다음 독회 때는 이진숙의 『위대한 유토피아의 꿈: 러시아 미술사』(민음in, 2018)을 읽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외 거주자를 제외한 회원들은 6월 15일 함께 자리하여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과 2학기에도 대면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의 뜻깊은 지원사업 덕분에 우리 독회 회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소양을 쌓으며 돈독한 정을 담백 쌓고 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러시아어 형태론 문헌 읽기 (책임자 이상아 외 6인)

저희 독회는 배움의 출발선에 있는 학문 후속 세대들(대학원생 7명)로 구성된 독회로, 여러 언어학적 이론들을 접하고 그 이론들에 반영된 시각을 배워나감으로써 향후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언어"를 분석할 안목을 갖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첫 모임을 구성한 후 매주 1회 꾸준히 모임을 가져왔고, 한국러시아문학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난 4월부터는 독회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선정한 "형태론"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습니다.

독회 진행은 ZOOM을 매체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되며 한 번의 모임에서 2~3명의 구성원이 20~30분간 맡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발제가 끝나면 사회자의 진행하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와 관련해 모두가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고, 발제자가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읽었고, 앞으로 읽을 예정인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의 나열된 순서대로 읽지 않고, 연간 계획에 따라 주제별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매달 첫 모임은 한국어 논문을 강독하는 날로 정

해, 각 회원이 추천하는 국내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 이인영. (1997). 『러시아어학-보다 현실적 접근을 찾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2.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 Плунгян, В. А. (2003).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Введение в проблематику. Изд. 2-е, исправленное. М.: Едиториал УРСС.
4. Богданов, С. И., Евтюхин, В. Б., Князев, Ю. П., Смирнов, Ю. Б., Рьжова, М. Ю. В., & Воейкова, М. Д. (2009).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ик для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5. Blake, B. J. (1994). Ca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지난 5월 19일에는 학회 지원금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원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교류와 꾸준한 연구 자료 탐독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 영미권 슬라브연구 동향 스터디 (책임자 전미라 외 3인)

저희는 영미권 슬라브연구 동향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의 주요 슬라브학 학술지(Slavic Review, Russian Review, Russian Literatur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의 최신호부터 최근 10년간 발간된 호를 살펴보면서, 각호에 실린 논문 목록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기술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라 인문학 전반에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과 포스트 인문학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문학연구 역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미권 학계의 슬라브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슬라브학의 전체 지도를 다시 그려보고, 국내 슬라브학 연구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슬라브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정리하고,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현재 연구 동향에 파악할 수 있는 레포트/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영미권 슬라브연구와 국내 슬라브연구 비교 분석, 주제별 연구 현황 등의 추가 분석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슬라브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 인지심리학과 문학(책임자 강수경 외 2인)

강수경(부산대), 이상철(경북대), 정지윤(경북대) 이상 3인으로 구성된 본 독회 모임의 주제는 ‘인지심리학과 문학’입니다. 우리 모임이 선정한 도서는 『인지심리학의 기초』, (Michael W. Eysenck · Marc Brysbaert 공저, 김태훈·이윤희·최원인·최지연 공역, 학지사, 2021)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현재 인지심리학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간의 지각, 기억, 언어, 학습 등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자극을 인식하고 처리하며 저장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분석에도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던디대학교 인지심리학 전공 학과장 트레버 할리 교수는 이 책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운영하는지와 인지심리학의 주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훌륭한 인지심리학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독회가 선정한 이 책은 심리학에는 문외한인 팀원들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서라고 생각됩니다.

『인지심리학의 기초』는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회 모임의 진행 기간은 6개월이며 한 달에 한 번 줌(ZOOM)을 통해 만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모임에서 평균 2장 정도를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생각보다 책이 두꺼워서 걱정이 앞섭니다만). 지난 5월 한 차례 모임을 통해 독회 모임의 진행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6월 두 번째 모임부터 본격적으로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고 서로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한 오프라인 독회 모임도 계획 중입니다. 이열치열의 도시인 대구에서, 또는 바다의 도시인 부산에서 치열하게 읽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우리 독회 모임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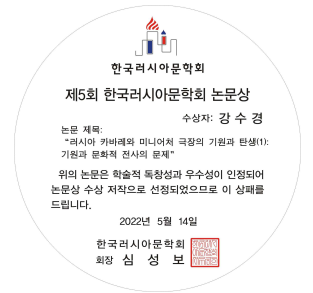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5월 14일 제 90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의 「러시아어 명사 술어 화제화 구문의 통사적 파생」, 문학분과에서는 김민아 회원(경북대)의 「키테지 전설의 다층적 의미 분석 - <Легенда о граде Китеже> 텍스트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노트 발표세션에서는 윤새라 회원(울산과기원)이 「기억의 문화적 재구성: 톨스토이의 유럽 여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논문발표회를 마친 뒤에는 <한국러시아문학회 2022년도 논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강수경 회원(부산대)이 논문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의 기원과 탄생(1): 기원과 문화적 전사의 문제」의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학회지 발간

▶ 2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6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8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김혜란 회원(고려대)의 「리브레토 작가 무소르스키와 <호반시나>에 새겨진 ‘분열’의 시간」, 한지형 회원(부산대)의 「17세기 러시아어 동사 체계의 인식과 정립 양상 : Грамматки Славенских правилне Свнтгама(1619)와 Grammatica Russica(1696)를 중심으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 5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7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8편이 수록되었습

니다. 손재은 회원(고려대)의 『투르케네프의 <루딘>에 나타난 ‘그라모트노스차’: 주인공들의 글쓰기와 독서』, 이지연 회원(한국외대)의 『‘실재’의 소리: <솔라리스> 사운드스케이프와 ANS 신시사이저』, 전병국 회원, 양호정 회원의 『러시아 사회통합정책의 민낯, 목표와 적용의 괴리: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시야를 중심으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 2022년 8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78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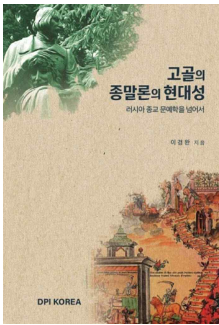
▶ 김태옥 회원(충북대)이 2022년 2학기부터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정보라 회원의 소설집 『저주토끼』 (2017)가 부커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윤영순 회원(경북대)이 2022년 2월 25일자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인문학단 소관 지원사업 평가관리, 기획 및 정책수립, 진도 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연구동향 조사·분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신간 소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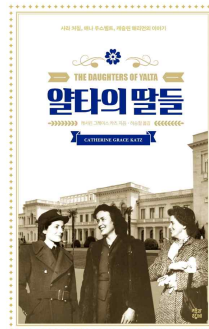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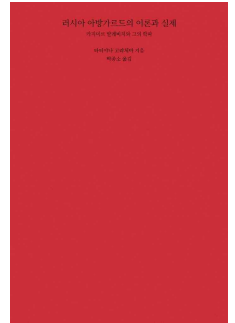
### 1. 고골의 종말론의 현대성 러시아 종교 문예학을 넘어서 (이경완 지음, DPI KOREA(디피아이코리아), 2021년 12월 27일 출간)

러시아 정교 중심의 보수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고골을 러시아 메시아니즘을 주창한 순수한 러시아 정교 작가로 규정하려는 편향성을 보이는 반면, 보수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고골이 우크라이나를 억압하는 러시아 제국을 메시아적 소명을 부여받은 민족 공동체이자 교회 공동체로 이상화한 것에 대하여 그를 배신자, 매국노로 규정하는 경향도 있다. 전자의 경우 고골의 우크라이나 정체성과 그의 종말론적 세계관에 명백히 내포된 가톨릭, 서구 경건주의 등의 비(非)정교적인 요소들을 간과한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고골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의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적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러시아 메시아니즘을 주창한 것임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양 진영 모두 고골이 제2권에서 묘사하고자 한 이상적인 경제 모델은 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변방에 형성된 구교도나 복음주의 교파의 농촌공동체와 유사한 면이 있음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고골 연구가 이러한 극단적인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면 그의 진면목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의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들도 좀더 해명될 수 있지 않을까?

### 2.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론과 실제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그의 학파 양장 (타티야나 고랴체바 지음, 박종소 옮김, 지하출판소, 2021년 12월 29일 출간)

러시아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학예연구원 타티야나 고랴체바가 말레비치의 예술 철학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구축주

의와의 상호 및 갈등관계를 서술함으로써 절대주의와 구축주의 각각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말레비치가 주축이 된 그룹 우노비스의 사회적 활동들, 그리고 제자들의 예술 세계와 삶의 단면들까지 충실히 다룬다. “손과 발이 자라난 정사각형이 이미 온 세상을 뛰어들어다니고 있다.”는 말레비치의 표현처럼 광범위하게 발생한 예술 현상인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그리고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역동성은 그동안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온 우리에게 아득한 것이었다. 이념적 대립을 떠나, 인류의 거대한 실험 가운데 생생하게 펼쳐졌던 예술가들의 철학과 삶의 면면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책은 관련 분야 서적의 부족함을 느끼던 독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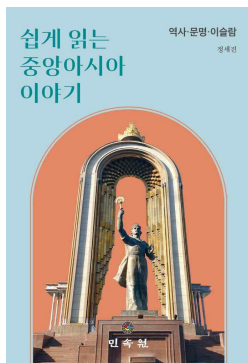
### 3. 알타의 딸들 사라 처칠, 애나 루스벨트, 캐슬린 해리먼의 이야기 (캐서린 그레이스 카츠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2022년 02월 14일 출간)

1945년 2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자 ‘3거두’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은 전쟁 종식에 합의하고 전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알타회담을 열었다. 8일간 진행된 알타회담이 20세기 전후 세계질서를 만들고 냉전의 포문을 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당사자들과 주변인들이 제각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와 같은 내밀한 이야기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젊은 여성 역사가이자 작가인 캐서린 그레이스 카츠는 세 거물 정치인이 회담장에 데려온 세 딸들에 주목했다. 맨해튼의 차트웰 책방에서 시작된 인연으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처칠 가족의 자료를 접한 저자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딸 사라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딸 애나 루스벨트,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에버럴 해리먼의 딸 캐슬린 해리먼의 기록을 모으는 여정에 나섰다. 그 여정의 결과물인 《알타의 딸들》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작은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자, 새로운 관점으로 알타회담과 전후 세계를 바라본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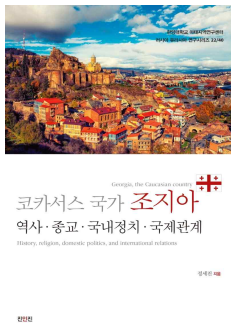
**4. 쉽게 읽는 중앙아시아 이야기: 역사, 문명, 이슬람 (정세진 지음, 민속원, 2022년 03월 10일 출간)**

본 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구성되었다. 1부 격인 ‘중앙아시아의 역사’에는 1-3장까지 중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몽골과 러시아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었다. 2부인 ‘중앙아시아의 문명’에는 5-6장으로 문명 및 문화 정체성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하였고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크 민족의 문명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다. 3부 격인 ‘중앙아시아 이슬람’에서는 7-8장으로 중앙아시아의 생활 이슬람을 카자흐 이슬람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5. 코카서스 국가 조지아 역사·종교·국내정치·국제관계 (정세진 지음, 진인진, 2022년 03월 30일 출간)**

『코카서스 국가 조지아-역사·종교·국내정치·국제관계』는 1부 ‘조지아의 역사와 종교문화’, 2부 ‘조지아 국내 정세’, 3부에서는 조지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조지아 정부의 대외정책을 중



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본 저서는 코카서스 국가인 조지아를 총괄적으로 소개한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후 흑해연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흑해 서안을 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정치-외교적 경로를 걸어온 조지아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른 깊이 있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6. 슬라브, 막이 오른다 (김주연 지음, 파플엔, 2022년 04월 01일 출간)**

우리는 ‘슬라브’를 잘 모른다. 슬라브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슬프게도 아우슈비츠 학살, 프라하의 봄, 체르노빌 참사, 보스니아 내전, 우크라이나 침공 등 모두 어두운 핏빛의 단어들이다. 저자 김주연은 이처럼 핏빛으로 얼룩진 역사를 보듬으며 그 속에서도 ‘수레국화’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슬라브인들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 오스만 제국, 히틀러의 독일, 그리고 소비에트와 현재의 러시아처럼 너무도 강력하고 전제적인 이웃을 둔 이유로 항상 신음해야 했던 민족의 경험이기도, 우리 독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7. 창백한 말 (보리스 빅토로비치 사빈코프 지음, 정보라 옮김, 빛소굴, 2022년 06월 17일 출간)**

사빈코프는 당시 많은 혁명가들의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수많은 권력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절정의 암살 능력과 카뮈를 비롯하여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탁월한 글들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사빈코프가 진정 혁명가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위계적 권력에 대한 그치지 않는 투쟁, 민중의 자유를 믿고 그것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삶. 민중의 이름으로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가 점차 권력 그 자체만을 탐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와중에도 사빈코프는 약자의 편에, 민중의 편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바위보단 계란이 되길 택했고, 그래서 그의 삶은 슬한 고난과 고초로 가득했다. 사빈코프의 인생과 삶을 보면 범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신념과 굵은 신경줄을 갖고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린 『창백한 말』을 통해 고뇌하는 인간 사빈코프를 마주할 수 있다. 그는 민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은 내려놓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무자비하게 권력자들에게 총탄을 박으면서도 자신의 살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한다. 증오로 뿔뿔 뭉친 수류탄을 던지지만, 그는 이 수류탄이 세상에 진정 사랑을 퍼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뇌한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8집, 제79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8집은 2022년 8월 25일 발간 예정입니다. 제79집은 2022년 10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11월 25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 논문 투고규정

-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

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비전임 게재료 없음, 비전임 연구비 수혜논문: 2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23-8457055 예금주: 류순옥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22년 6월 3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

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09~2022년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심성보 회장	2,000,000원 (2022)
정명자 전 회장	5,000,000원 (2021)
박재만 회원	500,000원 (2021)
최 선 전 회장	1,000,000원 (2021)
서상범 전 회장	1,000,000원 (2020)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9)
김규중 회원	2,000,000원 (2019)
변현대 전 부회장	1,000,000원 (2019)
최 선 전 회장	1,000,000원 (2019)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이대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9)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대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2017~2022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정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10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영량,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민아,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희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대, 서광진,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문영,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정영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한지형,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9인)

▲ 평생회비 부분납(2022년 6월 30일 현재)

길윤미,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 원), 강수경, 안지영(이상 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0인)

▲ 회비 납부(2022.1월1일 - 2022년 6월 30일 현재)

김주연, 손재은, 이경완, 전미라, 홍상우, 황성우, 김나영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21년 12월 23일 현재)

경북대도서관

▶ 2022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계좌번호: 하나은행 864-910211-28107, 예금주: 서광진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311호  
TEL: 053) 950-7160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http://www.russian.or.kr)